

유중아트센터



예술, 나눔과 치유의 문화를 만나다

지난 2011년 11월 1일, 방배동의 한 건물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1층은 카페, 2층과 3층엔 각각 아트홀과 갤러리로 구성된 이곳은 문화예술 발전에 뜻을 둔 유중재단의 유중아트센터이다.



UJUNG ART CENTER
ART HALL & MUSIC STUDIO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재단

유중재단의 설립이념은 간단하게 지(智)·덕(德)·체(體)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지(智), 바로 유중재단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아트홀과 갤러리 그리고 카페까지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바로 재단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과 후원을 기초로 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유중재단 이사장이 치지 않고 인재 발굴과 양성에도 힘쓰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한다. "실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인재들을 위해 쿤쿠르를 한 유중콩쿠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된 신예 음악가들이 있다면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재단과 무대가 동시에 갖춰져 있기에 가 실제로 현재 유중아트센터 유중갤러리에 속해있는 창작스튜디오에 6명의 신진미술작가들에게 1년간 무상으로 각각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홀과 갤러리

두 번째 설립이념인 덕(德)은 예술 그 자체이고 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음악과 미술이 설 수 있는 공간과 기틀을 마련해주고자 완벽한 시설을 갖춘 연습실과 작업실, 그리고 아트홀과 갤러리를 만들었다. "저의 유중아트센터의 유중아트홀은 10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2층 전제를 할애해서 더 큰 공연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공연장 음향과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모를 줄이고 보다 완벽한 공연장으로 꾸몄습니다. 이 공연장은 단순히 음악회를 위한 공간이기보단 연주 전 리허설, 마스터 클래스, 제자 발표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피아니스트 유기 구라모토와 디토의 지용 씨가 공연 전 리허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로비를 사이에 두고 공연장 반대편은 각각의 연습실로 다양하게 꾸며져 있었다. "총 8개의 연습실이 있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 연습실 5개,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 2개, 그리고 챔버 연습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음은 물론이고 최고의 시설과 악기를 구비해두고 여유 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들입니다." 3층 유중갤러리 역시 전시장과 창작스튜디오로 분리되어 있었다. 2층과 3층 모두 결과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한 연습실과 작업실이 함께 있는 것이 이곳 유중아트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공간이다.

도심 속 휴식 공간, 카페 드 유중

유중아트센터 1층에 자리잡은 카페, 길모퉁이는 기존의 커피전문점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싱그러운 향에 기분 좋아진다. 삼평육 카페로 기네스에까지 등재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카페 드 유중. "아트홀과 갤러리가 개관하기 몇 달 전 미리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만큼 쉽고 빠르게 저희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작은 갤러리로 꾸며진 한쪽 벽면을 무심코 즐긴다면 클래식 음악도 난해한 미술 작품도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유중아트센터는 예술인들만이 독점하던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일반인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공간이다. 아트센터 건물 전반에 흐르는 'Healing'의 향기와 느낌이 더 많은 공연, 더 많은 전시회를 통해 전달되길 기대해본다.

글·조미정 기자 사진·윤윤수 기자

